



2006 녹색순례

# 지리산

길에서 길을 묻다





# 산경도



여는 시

## 행여 지리산에 오려거든

이원규

행여 지리산에 오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대 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 무리에 흠뻑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저녁노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풀잎으로 오고  
피아골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 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려거든  
불일폭포의 물 방망이를 맞으려  
벌 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의 눈 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져 부스러지는 회한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려거든  
세석평전의 철쭉 꽃 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혁명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처녀림 칠선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진실로 지리산에 오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 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하봉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특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견딜 만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오윤 / 지리산 /

## 녹색순례는 . . .

녹색순례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자연과 온 몸으로 소통하기 위한 길 떠남입니다. 1998년부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녹색연합 활동가는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배낭을 메고 온 몸을 자연에 의지한 채 열흘 간 도보순례를 합니다. 녹색순례를 통해 활동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어디가 제일 아픈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는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상처 난 곳을 치유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행동해 왔습니다. 활동가들이 발은 부르뜨고, 물집이 터지는 힘든 길이지만 녹색순례를 통해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집니다. 녹색순례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녹색순례는 98년 강화 갯벌에서 새만금 간척이 진행되고 있는 동진강, 만경강까지 도보순례를 시작으로, 99년 송전철탑이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원전지역 곳곳에서 진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다시 땅 끝 해남에서 새만금 갯벌까지 간척사업 중단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비무장지대(DMZ)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02년에는 빼앗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 땅 구석구석에 자리한 미군기지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에는 생명의 물줄기 천 삼백 리 낙동강을 따라 걸으며 강에 의지한 삶과 생명을 품은 강을 만났습니다. 2004년에는 굽이굽이 백두대간으로 이어져 그곳에서 지켜진 산천과 지켜져야 할 자연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의 발걸음은 천성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과 계곡과 꼬리치레와 뭇생명들이 우리 안에서 더불어 살수 있기를 기도하며 한발 한발 내딛었습니다.

2006년, 우리는 지리산으로 갑니다.





## 사티쉬 쿠마르

- 땅 위를 걷는 사람

2004년 4월 30일, 녹색연합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다. 녹색순례자 사티쉬 쿠마르, 그로부터 돌려앉은 마음을 하나하나 흔들여 깨우는 맑고 분명한 녹색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 녹색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라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뛰어난 훈련은 평화로운 녹색순례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면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자연은 책만 본다가나 강의를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인디언들은 자연을 알고 환경을 이해하고 진리 찾기를 위해 들판이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진리를 찾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기 전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찾기는 삶을 손쉽게 누리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배고픔, 혹독한 날씨를 극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인도를 떠나 인도가 아닌 제가 모르는 문화, 처음 맛본 음식을 먹으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진리 찾기였습니다. 저는 제 스승이신 비노바



바베에게 갔습니다. 선생님은 순례를 떠나려면 돈 없이 떠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없이 순례를 떠났습니  
다. 두 다리 밖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서 저  
녁을 먹을지, 아니 저녁은 먹을 수나 있을지,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순례에 영향을 받고 녹색순례를 한다는 소식  
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연에 나가 자연이 파괴된 현장  
을 눈으로 직접 보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많은 곳에 평화순례를 했습니다. 나이 오십이 되어서  
는 영국 전체를 평화순례 했습니다. 육십이 되어서는 3주 동  
안 신성한 산이라고 불리는 헤일라시 산을 순례했습니다. 이  
순례를 마치고 네팔과 티베트를 순례했습니다. 제가 걸으면  
서 배운 것은 우리는 지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평화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자연의 보호자도 아니고, 지킴이도 아니고, 자연의  
친구입니다. 자연은 우리 적이거나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  
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지 못  
한다면 인간은 사회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구의 모든  
자연계와 동물들과 함께 평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는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연과 우리자신, 사회와 어떻게  
더불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자신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박한 삶이라는 것은 가장 영성적 삶  
입니다. 자발적인 가난함, 자발적인 소박함은 가장 근본적으  
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이루는 길입  
니다.

순례길을 시작하며

## 지리산, 길에서 길을 묻다

녹색순례는 그 이름만으로 설레 이고 힘이 나는 말입니다. 순례를 통해서 우리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자연과 생명을 만났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우주와 조우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벌써 아홉 번째인 성찰과 희망의 녹색순례, 그 길을 여는 곳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백두산의 이어지는 큰 산줄기(백두대간)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두류산(頭流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토는 모두 백두대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강, 작은 산과 산줄기들이 모두 백두대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은 세계와 우주로 이어집니다. 이번 녹색순례 첫 걸음을 시작하는 노치마을은 백두대간 들머리입니다. 백두대간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번 순례를 통해 지리산과 백두대간, 그리고 세계와 우주를 만나게 됩니다. 지리산 어느 산길에서 만날 앞벌레의 여린 움직임과 계곡에 뼈를 묻은 빨치산 이야기, 밀렵군들의 덮에 걸려 다리를 잃은 외다리 곰 이야기 그리고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우린 지리산을 만나고 역시 세계와 우주를 만납니다.

하지만 세계와 우주로 통하는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 좁아지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과 백두대간, 모든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자신의 조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조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리산에서 7일 간 진행되는 우리의 함께 걷기는 우리를 자연과 세상으로 온전히 인도할 것이고 자연스런 성찰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에서 이어질 활동가들의 화두는 분명 희망일 것입니다. 이번 순례길에서 나의 화두는 '조화'입니다.

2006 녹색순례 대장 양홍모

# 천리길 月 卜 卜 月

- ① 동산에 아침 햇살 구름 뚫고 솟아와  
새하얀 접시꽃잎 위에 눈부시게 빛나고  
별 아래는 구름바다 천~길을 뺏었나  
산 아래 마을들아 밤새~ 절들~졌느냐
- ② 나뭇잎이 스며가네 뭇방울이 날으네  
별쪽에 영긴 침냉굴 우리 갈 길 막아~도  
노루사슴 뛰어 간다 머리 위엔 종달새  
수풀 저편 눈두렁에 아기염소가 노닌다
- ③ 솟아지는 불~햇살 물아치는 흙먼지  
이마에 맺힌 땀방울 눈~가에 쓰려도  
우물가에 세~색~시 물~동~이 이고오네  
호랑나비 날~으~고 아이들은 출렁거린다
- ④ 먹구름이 물~려운다 뱃방울도 떨어진다  
등 뒤에 흘러내린 물이 속옷까지 적셔도  
소나기를 피하라 천둥인들 무서우라  
겉절이 강아지는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가자 천리길 굽어굽어 걸~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가자 천리길 굽어굽어 걸~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 순례 진행팀

대장	양홍모	부대장	조희은
기획과 지원	양홍모, 조희은, 배제선, 고이지선, 장정구		

## 반갑다, 우리 모듬

구간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5모듬
전구간	함은혜	최은애	김미영(a)	노수진	이호순
	고이지선	김미영(c)	허승은	배난주	보람
	김은주	문은정	김용미	신영은	김미영(b)
	정명희	이정희	조희은	윤소영	하수영
	한영진	홍상미	김남기	한상민	나지아
	윤상훈	윤기돈	김영탁	최위환	이동재
	모영동	경수	유종반	이재구	정호
	유병연	장정구	오재욱	배제선	김혁
					양홍모
전반기	성은혜	백호기	박은희	유명숙	이승혁
	이인수	박필순	황돈영	한승우	구대수
	조용태	손승우	박은영	정용미	박정운
		신동주	임성희	백동훈	
후반기	김하나	김제남	허준규	정영일	최승국
	김기돈	최만종	김혜애	이승난	신정은
		허은예	강지윤	윤지선	박은애

## 백두대간, 백두대간, 백두대간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이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물줄기에 의해 한 번도 잘리지 않고 연속되어 국토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산줄기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

**백두대간은**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중 신경준이 집필한 「여지도」의 「산천」을 보고 1800년경에 누군가 만든 『산경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나,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이 땅에서 사라졌던 우리의 전통적 지리 인식체계이다.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가능케 했던 우리 고유의 지리 인식체계이다.

**백두대간의 존재는** 1913년 조선광문회가 발간한 『산경표』가 1980년 「대동여지도」를 연구하던 이우형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산경표』는 우리나라의 산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흐르다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족보 형식으로 도표화(圖表化)한 책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1정간·13정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국토를 남북으로 내달는 대동맥이며, 동해로 흐르는 물과 서해로 흐르는 물을 갈라놓는 대분수령이며, 14개 정간·정맥의 모태이며, 모든 강의 발원지이며, 한반도 산지 분류체계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인문·사회·문화·역사의 기반이며,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대표

산줄기이다.

**백두대간**은 선(線)이 아니라 연속된 산지체계이며, 곧 국토 전체이다.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은 '종주 산행의 노선' 또는 '분수계(分水界)'라는 '가장 좁은 의미의 백두대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좁은 의미의 백두대간'은 '중심 산줄기'를 뜻하며, '넓은 의미의 백두대간'은 '중심 산줄기와 그 부속 산지'를 뜻하며, '가장 넓은 의미의 백두대간'은 '전통적 국토지리 인식체계'로서 '국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야만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국토의 단일성과 일체성에 대한 인식을 되살릴 수 있고,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여러 개의 산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대의 영토 개념에 대한 재조명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 식생 현황, 생물학적 특성, 또는 그 훼손 정도를 파악하거나, 복원·보호·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그 능선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넓고 높은 공간적 규모(입체)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공간적 실체를 먼저 인식함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백두대간은 합당하고도 온당한 지리적 범위를 점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거대한 자연환경의 장(場)이며, 생태의 장이며, 스스로 살아있는 자연이다.

## 지리산, 지리산, 격려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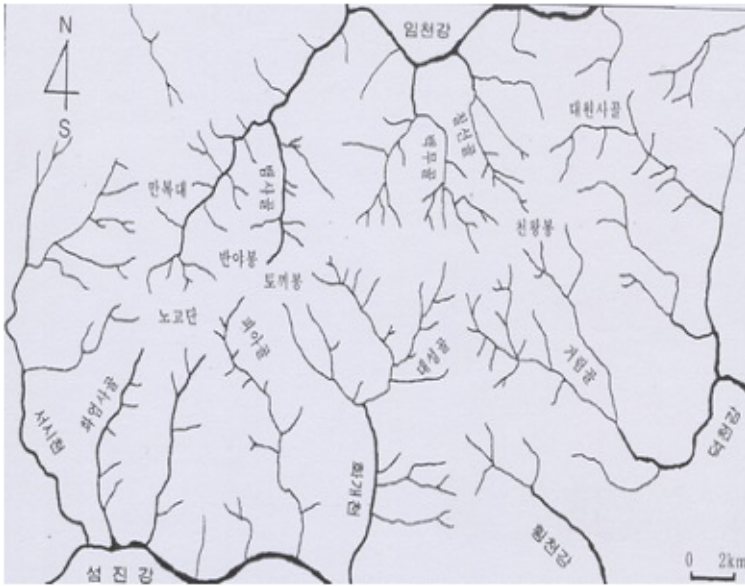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40,485㎢로,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의 3개 도, 1개 시, 4개 군에 걸쳐 있다.

지리산(智異山)은 신라시대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방장산이라 일컬어왔다. 또한 백두산의 정기가 남으로 흘러 내려오다 다시 솟았다 하여 두류산(頭流山)이라고 불렀다.

천왕봉을 비롯한 중봉(1,875m)과 제석봉(1,806m), 솟대봉(1,703m) 등의 고봉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 전체적으로 외형상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을 이루고 있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동서로 약 45km의 주능선이 뻗어 있는 지리산의 둘레는 320km로 800리나 된다.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물은 북측 낙동강수계와 남측의 섬진강수계로 나눌 수 있다. 지리산 심원계곡, 뱀사골계곡, 백무동계곡과 칠선계곡에서 임천강으로, 중산리계곡과 대원사계곡에서 덕천강으로 흐른다. 임천강과 덕천강은 남강이 되어 낙동강으로 간다. 지리산 서쪽 물은 요천강으로 흘러 섬진강과 만나고 남쪽은 화엄사계곡, 피아골계곡, 대성골을 거쳐 섬진강으로 흐른다.





▲ 지리산 권역 수계도

지리산은 「택리지」에 ‘남해에 가깝고 기후가 따뜻하여 산 속에 대가 많고 감과 밤도 많아서 가꾸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열고 떨어지고 높은 봉우리 위에 기장과 조를 뿌려도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였고 이 산의 땅은 ‘두툼하고 기름져’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다고 하였다. 「택리지」의 설명도 옳지만 지리산은 역사 속에서 피로 많이 얼룩졌다. 큰 산과 골짜기에 섬진강을 끼고 들어앉은 이 곳은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로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려야 했던 삼국시대 때부터 임진왜란 때에는 하동포구로부터 섬진강을 거슬러 내륙지방으로 들어온 왜적에게 짓밟혔다. 해방 뒤의 여-순반란 사건과 한국전쟁 통에도 빨치산들과 그들을 토벌하던 군경들이 피를 흘렸다.

지리산은 큰 품만큼이나 이야기와 한을 많이 지닌 산이다.

## ● 날마다 본 구간과 숙소

### ■ 제1일차(4월 28일, 금) 17km

출발 →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 → 고기리 농업용수댐 → 정령치 → 달궁삼거리 → 심원마을

◎숙소 : 심원마을 반야산장

### ■ 제2일차(4월 29일, 토) 17km

심원마을 → 성삼재 → 노고단 → 교재 → 화엄계곡 등산로 → 화엄사 → 종북원센터

◎숙소 : 화산농원

### ■ 제3일차(4월 30일, 일) 24km

화산농원 → 운조루 → 섬진강 뚝방길 → 861 지방도로 → 피아골

◎숙소 : 토지초등학교 연곡분교

### ■ 제4일차(5월 1일, 월) 20km

토지초등학교 연곡분교 → 농평 → 당재 → 신흥마을 → 쌍계초등학교 → 중촌 → 상훈사

◎숙소 : 상훈사

### ■ 제5일차(5월 2일, 화) 15km

상훈사 → 임도 → 형제봉 옆 활공장 → 청학이골 등산로 → 회남재 → 회남마을 → 목계초등학교

◎숙소 : 목계초등학교

### ■ 제6일차(5월 3일, 수) 10km

목계초등학교 → 삼신봉터널 → 양수발전 상부댐 → 반천계곡 → 반천리

◎숙소 : 서지농원

### ■ 제7일차(5월 4일, 목)

서지농원 → 산청 양민학살 현장 → 덕천서원, 해단식

## ● 녹색순례 진행방법

- ▶ **순례는 걷기가 기본이다.** 녹색순례는 차량이동을 가장 적게 하기로 약속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곳을 걸어간다.
- ▶ **하루 8시간 이상 걷는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를 두 다리로 걸으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파괴로 상처 입은 것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있는 환경운동을 준비한다.
- ▶ **녹색순례는 자연과 하나 되는 데서 시작된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도시의 생활을 버리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
- ▶ **녹색순례는 함께 하는 순례이다.** 항상 마음에 나보다 옆의 친구를 먼저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한다. 진정한 순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듦과 동지의 힘듦을 함께 하여야 한다.

### ▣ 도보와 생활, 식사 지침

- 녹색순례의 주제와 의미를 충분히 안다.
-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은 잘 지킨다.
- 밥은 모듬별로 재빨리 하여 늦지 않게 한다.
- 밥 먹기에 앞서 자연에 고마운 기도를 올리고 먹는다.
-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모든 상황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 ● 녹색순례 준비물

### ● 개인준비물

배낭 : 대 - 모든 개인 비품을 담는 용도

소 - 걸을 때 도시락, 모자, 물통 담아 다니는 것

침낭 : 산 주변이라 추우므로 가을, 겨울용 침낭

매트리스 : 난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

등산화 : 순례코스가 국도와 대부분의 임도(임업도로), 적당한 산지이므로 등산화나 편한 운동화가 필요, 새 등산화는 신어서 적응된 상태여야 함.

도시락통 : 점심식사 밥과 반찬을 담아서 다니는 용도

개인물통 : 물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꼭 개인물통을 지참

오버자켓 : 방풍, 방수가 가능한 긴팔 점퍼

신분증, 의료보험증

그 밖의 것들

랜턴, 슬리퍼, 우의, 활동복, 세면도구, 여벌의 옷가지, 모자, 손전등, 수저, 개인컵, 손수건, 필기도구, 양말, 세면도구, 기타 물품 등

### ● 조별준비물

코펠 2종, 버너 3종, 수세미, 국자, 주걱, 칼 등 취사 관련 도구, 밀반찬, 재봉구(실, 바늘), 랜턴 등

### ● 전체준비물

트럭 1대, 플랭카드, 순례깃발, 녹색연합 깃발, 구급약품, 문구류, 지도, 파워선, 슬라이드기, 무전기, 버너연료 등

###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의 장대한 산줄기는 지리산에서 끝맺는다. 조상들은 지리산을 백두대간의 흐름이 이어진 산이라 하여 두류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1967년 12월 8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3개도, 5개시군, 15개면에 걸쳐 있으며 약 1억3천만 평의 넓이로 둘레는 800리에 이른다. 지리산은 산악형의 국립공원 중 가장 규모가 커서 대피소도 노고단, 뱀사골, 피아골, 연하천, 벽소령, 세석, 장터목, 치밭목, 로터리 등 9개로 가장 많다. 또한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지리산 고유 식물로는 구상나무, 지리대사초, 금강애기나리, 모데미풀, 히어리 등이 있으며 울벚나무, 사향노루,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등의 천연기념물과 세계적 희귀동물이 살고 있다. 지리산은 온대에 속하면서도 고도가 높아 북방계 식물의 남쪽 한계선을 이루고 있어 1,300여종이 넘는 풍부한 식생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100여 종 이상의 특산·희귀식물을 보유한 식물상의 보고다. 이 특산·희귀식물들은 대부분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서식하는 고산종으로 제석봉-장터목-춧대봉-세석평전 일대에 밀집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울창한 고산침엽수 원시림을 자랑하던 지리산은 한국전쟁 때 대규모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전쟁 이후에는 벌목업자들의 마구잡이식 도벌이 성행했다. 그리고 그 도벌꾼들이 도벌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생태계가

아주 많이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개발과 관광의 물결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60년대 초반에 군사도로로 만들어진 벽소령관통도로, 88년에 개통된 설삼재 관광도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세석평전 주변의 군사시설, 국립공원구역내의 집단시설지구, 지리산 양수발전댐, 지리산 온천과 골프장, 회남재도로포장,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삼신봉터널 등 지리산은 온갖 현안으로 둘러싸인 현안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 하루일정

순례 구간	출발
	→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 → 고기리 농업용수댐 → 정령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산리 심원마을(17km)
	프로그램
숙소	심원마을 반야산장

## 백두대간 마룻금이 지나가는 마을, 노척마을

순례를 시작하는 전북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척마을은 백두대간 마룻금이 마을을 관통한다. 이로 인해 이 마을은 사시사철 백두대간 종주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백두대간 마룻금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백두대간핵심구역이라 할 수 있지만 보호구역 설정에서는 제외되었다. 환경부의 '백두대간훼손지역조사연구 II'에 따르면 이 지역의 훼손지는 22,536㎡로 이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마을 주변의 산림은 별다른 훼손없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 핵심지역을 봤을 때 경작지로 인한 백두대간훼손 면적은 23.5km<sup>2</sup>로 전체 훼손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훼손유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백두대간보호와 생태계연결성을 위해 이 지역의 농업방식을 유기농경작으로 전환하고 토지를 조금씩 매수하여 복원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척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앞당산과 뒷당산이 잘 보전되고 있고 해마다 당산제를 진행하는 등 전통문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와 마을의 전통경과를 활용하여 백두대간 문화마을로 육성해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에게 백두대간 핵심지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저리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선 고기리 농업용수댐

고기리농업용수댐은 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댐건설 사업이다. 농촌공사 남원지사는 지난 98년부터 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높이 58m, 길이 303m, 저수량 104만 톤 규모의 저수지 공사에 들어갔다. 고기리댐은 저리산국립공원이 끝나면서 북쪽으로 백두대간이 뻗어나가는 접경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정령치에서 도로를 따라 5km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저리산국립공원 북부관리소 관내의 공원구역에 댐이 들어서 는 사업이다.

고기리댐은 전북도지사의 농촌지원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성 검토와 협의에서 제외되었다. 댐공사는 보전상태가 양호한 정령치 일대의 천연림 한가운데를 파헤치며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령치 계곡과 아름드리 소나무들의 훼손이 엄청나 백두대간의 생태축이 단절되었다.

이 사업은 하류에 위치한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와 덕치리, 운봉읍 주촌리, 덕산리 일원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워낙 그 규모가 커 완공되어 담수를 할 경우 정령치 계곡은 거의 물에 잠기게 된다. 또한 이곳에 담수가 시작되면, 하천유지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하류인 엄천강과 진양호의 오염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는 1998년 4월에 착공하여 2001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공사는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연장되고 있다.



### 하늘 아टे 첫 동네 심원마을

심원마을은 해발 900여m에 자리잡은 마을로 동쪽으로는 1,720m의 반야봉, 서쪽으로는 1,437m의 만복대, 남쪽으로는 1,506m의 노고단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어 북쪽 한곳만 원시림 사이로 길이 난 듯한 심원계곡이 흐르고 있다.

심원계곡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인데 일제탄압을 피해서 하나 둘 정착한 것이 가장 많았을 때는 1백여 가구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모두 떠났다가 1958년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마을은 남원에서 160리, 구례군 산동면에서 30리 이상 떨어져 있는 두메산골로 지난 1988년 지리산을 관통하는 성삼재관광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7농가가 약초를 캐며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관광도로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져 지금은 매년 여름 하루 평균 2000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갈 정도로 이름난 피서지가 되어 국립공원의 심원계곡과 달궁계곡이 오염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7월과 9월 두 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에는 1급수였던 계곡이 피서객이 빠져나간 뒤에는 2급수로 떨어졌음을 확인했다.

2006년 4월 11일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남부사무소에서는 지리산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2011년까지 이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밝혔다. 현재 심원마을과 직전마을 주민들은 한 평생을 살아온 마을에서 이주하라는 것은 산골마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순례단이 셋째 날 묵어가는 피아골계곡에도 이곳과 비슷한 직전마을(30가구, 87명)이 국립공원 안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 마을도 이주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서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지 순례길이 끝나는 날까지 화두로 잡아 고민할 문제이다.

## 비어있는 공간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 도스토예프스키

### 지리산 생태계를 단절하는 성삼재 관광도로

1988년 5월 개통된 성삼재 관광도로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훼손사례로 꼽힌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정령치-심원계곡-성삼재-시암재-구례군 광의면 천은사로 이어지는 이도로는 지역개발과 관광이라는 명분 아래 2차선 포장도로로 개설되었다. 이 도로로 인해 지리산의 서쪽 생태계는 단절되어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부르고 있다. 동물들은 도로 주변에서 도망가고, 아고산 식생지대에 개망초, 민들레, 달맞이꽃 등 외래식물이 들어오기까지 했고, 또한 밀렵꾼들과 채취꾼들에게 손쉬운 통로를 제공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도로가 생기면서 노고단은 관광객의 숫자가 7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발길 아래 정상부의 초원지대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봄·여름의 주말과 가을의 단풍철이면 성삼재에서 시암재까지의 도로는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일렬로 늘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매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신령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졌던 노고단에서 차를 타고 오른 구둣발과 슬리퍼 차림의 사람들을 만나고, 버스로 밀려들어온 단체 관광객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성삼재 관광도로로 비롯된 노고단의 현실이다.

## 여신 마고 신화

우리나라에는 참새 신화로 지리산의 마고(麻姑) 할미 신화가 있다. 지리산의 산신인 마고는 사랑하는 반야를 기다리면서 나무껍질에서 실을 뽑아 베를 짰다. 그리고 그 베로 옷을 만들어 천왕봉에서 기다렸다. 구름에 휩싸인 반야는 마고의 앞을 스쳐 쇠별꽃 밭으로 갔다. 쫓아가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해 화가 난 마고는 만들어 둔 옷을 갈가리 찢어 버렸다. 그것들은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걸려 나부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마고는 반야를 현혹시킨 쇠별꽃을 지리산에서 피지 못하게 하고 천왕봉 꼭대기에서 성모신으로 좌정하였다. 그 후 마고가 찢어서 버린 옷의 실오라기들은 풍란이 되어 지리산에 서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천왕봉 정상에는 성모신의 석상이 있다.

또한 지리산 반야봉은 높이 1751m의 제2봉우리로, 지리산 산신인 천왕봉(天王峰·1915m)의 마고 할미와 결혼한 반야가 불도를 닦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여러 큰 산에는 마고할미 전설이 발견되는데 환웅과 단군이 남성성을 띤 천신이라면 마고할미는 여성성을 띤 산신이라고 할 수 있다.

### ● 하루일정

순례 구간	심원마을 출발 → 성삼재 → 노고단 → 묘재 → 화엄계곡 → 화엄사 → 증복원센터(17km)
프로그램	지리산의 현안 그리고 아픔 (정호)
숙소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화산농원

## 지리산생명연대의 성삼재 도로 걷기

남원시 실상사 옆에 자리잡은 지리산생명연대에서는 2003년부터 성삼재 도로걷기 대회를 열고 있다. 생명의 속도로 걸어가며 차를 타고 달릴 때는 보지 못했던 생명들을 보고 만나며 지리산을 알아간다.

성삼재 도로 걸기를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셔틀버스 운행과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는 야간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등 생태화 도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걸기가 언젠가는 이 길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지리산의 흙가슴으로 되돌려 줄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 다시 돌아 온 노고단의 생명들

노고단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서부 관문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고산대 생태계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노고단은 일제 말기에는 선교사 별장지로, 1950년대 이후는 군부대 주둔지로서 훼손되어 왔고, 1988년 성삼재 관통도로 개설과 함께 정상 군부대 철수 후 몰려드는 탐방객들로 훼손되어 왔다. 지난 1988년 성삼재 관통도로 개설 이후 등산객들이 밀려들면서 정상부가 풀 한포기 없는 나지로 변했다. 풀 한포기 없는 땅에서 진달래 철쭉 원추리 군락지로 변모한 노고단은 사람이 망친 산을 사람이 살린 대표적인 현장이다.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991년 이곳을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노고단 훼손지 복원연구가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응용생태연구회(현재 한국환경생태학회)와 함께 식생복원공사를 벌였다. 노고단과 세석

평전의 탐방로 정비와 식생복원공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94년 116종이던 식물이 2005년에는 150여 종으로 늘어나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 노고단 훼손지 복원사업은 전 국립공원 고산지대 식생복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훼손지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노고단을 비롯해 세석평전, 제석봉일대, 반야봉, 칠선계곡 등이 있다.

### 할미단, 노고단

노고단은 태백산, 토암산, 계룡산, 팔공산과 함께 나라의 대사를 지낸 오악중 하나다. 신라 때 남악산으로 불렸던 이곳에서 박혁거세의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노고단이란 이름도 선도성모의 높임말인 노고와 신단이 있던 곳이란 뜻인데, 늙을 로(老), 시어미 고(姑)로 늙은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란 뜻의 노고단(할미단)이란 이름에서 이곳이 민족신앙의 성지로 신성시 됐음을 알 수 있다.

노고단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광주 무등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반야봉과 토끼봉, 천왕봉 등이 위용을 자랑한다. 노고단의 첫째 장관은 운해, 구름바다 위로 솟아있는 봉우리들이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노고단의 운해는 지리산 10경중 하나로 꼽힌다.

구한말 사당 남악사는 폐사됐다가 화엄사 앞에 복원됐다. 노고단은 또한 세석과 함께 신라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했던 수련장과 근대에 와서는 빨치산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의 풍토병에 속수무책이었던 벽안의 선교사들은 경치가 빼어나고 한여름에도 시원하며 맑은 물이 샘솟는 노고단에 별장을 짓고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가마를 메게 하여 이곳을 오르내렸다 하는데 지금은 왕시루봉에 선교사촌이 있고, 노고단에는 잔해만 남아 있다고 한다.

산이 품은 봄, 에돌아가는 섬진강 꽃길  
셋째 날 20060430 (일)

---

**섬진강 19번 국도 4차선 확장 계획**

구례에서 하동으로 가는 19번 도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라고 손꼽은 곳으로 이곳은 물길 꽃길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곳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그 경관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건설교통부와 하동군의 4차로 확장계획으로 경관이 빼어난 탐방형 도로의 기능을 잃을지도 모를 기로에서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동 읍내에서 화개장터도 경계선까지의 19번 국도의 4차로화 사업을 나눠 추진 중이다. 이 구간 중 약 9.7km 구간의 경우, 환경파괴 논란과 일부 주민의 반발 때문에 재설계에 들어간 곳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편(최종본)에 따르면 확장공사로 산자락이 잘려나가는 절토 구간은 1.3km로 벚나무 2000여 그루를 옮겨 심는 등 배나무, 벚나무, 대나무 등의 대량 이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차량 통과속도가 높아지면 소음공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마을구간의 도로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방음벽과 절토면 등이 모두 경관을 해치게 된다. 또 로드킬 모니터링팀에 따르면 섬진강변 국도의 경우는 굴곡이 심해 통과속도가 60km 정도로 느림에도 불구하고 린데도 km당 가장 많은 동물이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되면 80~100km로 질주하는 차들로 인해 수달은 물론 삼, 고라니 등 대형 포유류가 훨씬 더 많이 희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섬진강 옆으로는 국도 19번과 지방도 861번이 나란히 달리고 있다. 따라서 벚꽃축제기간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이 두 도로로 분산시킬 수 있다. 관광철에 밀리는 길은 10차선을 만들어도 여전히 정체된다.

부풀린 통행수요예측으로 일단 닦고 보자는 식의 도로건설 정책은 실제로는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넓은 도로는 지역을 머무는 곳에서 스치는 관광지로 만들어 자연도 사람도 더욱 멍들게 할 뿐이다.

### **주민들의 힘으로 도로확장을 막아내다**

전북 남원 인월면과 산내면 주민들이 토건 세력들로부터 그들이 기대어 사는 지리산 자락의 생태계를 지켜냈다. 남천을 따라 굽이굽이 달리는 60번 지방도로의 4차로 확장 계획을 주민들이 1년여에 걸친 반대운동 끝에 2005년 초 무산시킨 것이다.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은 1997년부터 인월~산내~경남 마천(도계)까지 4차로 신설 및 확장 계획을 세웠다. 8km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려 1140억원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산지를 절개하고 교각을 세우는 난공사로 계획되었다. 2004년까지 최종 설계안에는 1.42km의 터널과 4개의 교량을 세워 설계속도 시속 70km를 유지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도로 신설로 인한 이 구간의 통과 속도 단축 효과는 2~3분에 불과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자연경관은 모두 파괴된다.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굳이 확장, 신설하는 것은 환경과 주민의 삶에 해로울 뿐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도로 반대운동 세력을 조직하였고 지역 주민의 노력으로 이 사업은 백지화 되었다. 이 사례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처방식으로 평가될 것이다.

● 하루일정

순례 구간	화산농원 출발 → 운조루 → 섬진강 뚝방길 → 861 지방도로 → 피아골(24km)
프로그램	옛집 해설 섬진강 줄 배 타기 작은 학교 이야기(연곡분교 학부모님)
숙소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토지초등학교 연곡분교



##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락

전라북도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해발1151m) 자락,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진안, 임실, 곡성을 지나 남원의 요천을 합류하여 남동으로 흐르다 순천시 압록면에 이르러 보성강과 만난다. 섬진강은 남도 오백리(212.3km) 길, 세 개의 도(전남북, 경남)와 열두 개의 군을 거쳐 가는데 이는 우리나라 강 가운데 아홉 번째로 긴 것이다.

섬진강은 큰 도시나 넓은 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계곡을 지나는가 하면 갑자기 툭 터진 작은 들판과 들 끝 산자락에 걸린 산마을을 평화롭게 물 아래에 드리운다. '이제는 끝인 갑다' 하면 불쑥 수줍은 듯 몸을 드러내는 산골 색시 같은 강이다. 섬진강의 이름은, 1385년 경 왜구가 강 하구를 침입하였을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울부짖어 왜구가 광양 쪽으로 피해갔다는 전설이 있어 이때부터 두꺼비섬(蟾)자를 붙여 섬진강(蟾津江)이라 했다고 한다. 그 두꺼비비석이 지금 하동~광양을 잇는 하동교 옆에 있다.

많은 지역을 통과하는 섬진강이지만 유독 하동의 섬진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팔공산에서 출발한 물줄기가 구례군 토지면을 지나 하동군 화개면에 이르러서야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져 비로소 강다운 위세를 지니기 때문이다. 강이 크다는 것은 곧, 그만큼 많은 혜택을 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느 큰 강들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하구자락 또한 큰 배들이 드나들었고 큰 장이 형성됐었다. 지금은 초라해진 하동장은 조선의 10대 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것이다. 또한 수량이 풍부해 들녘이 풍성했으니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무대가 바로 하동 악양면 섬진강가에 자리한 평사리다. 섬진강의 하구는 곱고 질 좋은 모래밭이 워낙 넓어 다사강이나 사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섬진강은 구례 들머리 앞에서 몸을 지리산 쪽으로 구부리며 멀리 노고단과 눈맞춤을 한다. 구례 상사벌을 적시고 천하제일의 명당 운조루를 맞힌 강은 오른쪽으로 광양 백운산을 거느리며 이제 훨씬 우람한 계곡으로 들어서는데, 화개장과 악양들과 건너편 광양 다압 매화골에 향취 그윽한 이야기들을 부려놓는다.

피아골에서부터 하동까지 팔십 리 길은, 지금은 양쪽 강변길이 포장되어 운치를 잃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강변길 `하동포구 팔십 리'였다. 지리산 여느 계곡에 잠들어 있을 빨치산들의 넋을 만나고 온 강물은 흘러 흘러가 오백리길 끄트머리에 광양제철소라는 현대물을 맞히면서 광양만과 남해바다로 몸을 푼다.

### 수달보호구역

환경부는 광양제철소부터 구례까지, 진주 진양호에서 지리산 뱀사골까지 섬진강 하류와 남강 수계 전체를 수달



서식지로 보고 있다. 이 중 구례군 문척면과 간전면, 토지면 일대 1.83km<sup>2</sup>는 2001년 12월 1일에 '섬진강수달서식지'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은어낚시도 다슬기잡이도 할 수 없지만, 수달이 살아야 섬진강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 아니냐며 웃음 짓는다고 한다.

## 작은학교이야기

교직 경력 23년 차 장옥순 선생님이 구례 토지초등학교 연곡분교장에 부임한 것은 지난 2003년 3월이었다.

분교장으로 지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찾아간 장 선생님을 맞아준 것은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밝은 미소, 전교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장 선생님 반은 5학년 2명, 6학년 5명, 총 7명이었다. 부임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 이사 간 지현이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읍내 초등학교로 전학 가겠다는 6학년 아이들, 6학년이 갈 경우 학생수 감소로 폐교는 거의 확실해진다. 장 선생님은 좌절하지 않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장 선생님은 무엇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원하는 부모들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경쟁력을 갖춘 학교가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학력 향상,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학습방법을 철저히 익혀 3번에 걸친 수업 공개회를 열었고 여름 방학에도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 지도했다. 겨울 방학에는 반 아이들을 광주 집으로 초대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제동행 시간을 갖고 정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특히 학기 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독서 지도와 일기 쓰기 지도로 구례군 '매천 백일장'에서 산문 부문 상위 입상을 한 임형진 학생을 비롯해 '산수유 축제'에서 그림부문에 3명이 입상해, 분교장에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어줬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은 열심히 노력하는 장 선생님의 노고를 지켜보던 '폐교를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장 선생님 편이 되어 학교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전학을 가겠다고던 아이들은 졸업한 뒤, 면소재지 중학교에 진학해 최

상위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장 선생님은 이때부터 비록 폐교 직전 분교에 불과한 학교였지만 '학교를 지키는 것은 곧 교사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2004년 3월 초, 구례 토지초등학교 연곡분교장은 본교의 지원을 받아 전체 건물을 도색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폐교 여론 조사에서 폐교 반대가 확인되면서 교육청은 각종 시설을 정비하거나 세우기 시작했다. 운동장 우천 도로를 개설하고, 노후 급식실을 철거했으며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

여러 활동과 함께 2004년 6월에는 특기 적성 사업으로 본교의 지원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바이올린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연곡분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의 6남매 결연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교생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6학년 실과 실습 시간에 만든 김밥을 전교생이 함께 나눠 먹고, 추석맞이 송편 빚기에 유치원생들도 참여하는 식으로 학교 행사에 전교생이 참여해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는 것. 매주 토요일 1교시는 전교생 자치 활동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구례문화원 주최 사생대회나 매천백일장에도 전교생이 참여해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있다.

장 선생님의 학교와 학생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에 지금은 전학을 갔던 아이가 되돌아오고 이사를 간 아이도 분교장으로 통학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하나 된 마음이 폐교 직전의 우리 연곡분교장을 살리는 큰 힘이 됐다”고 말하는 장옥순 선생님은 올 해 3월 강진 마량초등학교로 전근하였다. 그리고 연곡분교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입학해 이제 19명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있다.

## 피아골

산도 붉고 물고 붉고 사람조차 붉어라, 오곡의 하나인 식용 피를 많이 가꾸었기 때문에 피밭골(직전골)로 불리다가 피아골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전투 때 흘린 피가 골짜기를 붉게 물들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도 있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의병투쟁 그리고 빨치산 활동시기 등 지리산이 전란에 휩싸일 때마다 피아골 또한 늘 그 핵심에 있었다. 깊은 골짜기만큼이나 아픈 역사의 생채기를 안고 있는 피아골이기에 남부군, 빨치산의 딸, 피아골 등의 여러 문학작품 속에서 주요 무대로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피아골 일대는 단풍으로도 유명한데 조선 시대 유학자 이던 조식은 “ 흰 구름 맑은 내는 골골이 잠겼는데 / 가을에 물든 단풍 불꽃보다 더 고와라 / 천공이 나를 위하여 뉘 빛을 주었으니 / 산도 붉고 물도 붉고 사람조차 붉어라.”라고 노래했다. 아마도 수많은 전투에서 죽은 이의 넋이 피어올라 이곳 단풍이 붉게 타오른 탓이리라.

내 일생을 사랑으로 채워 봤으면  
내 일생을 혁명으로 불 질러 봤으면

섬진강1

김용택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떠가도 떠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솜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주이며  
그을린 이마 현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놉이 달려들어  
떠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깔깔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썬 무등산이 그렇다고 현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없는 후례자식들이  
떠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평사막에서

민병일

악양 들녘 내려보는 마을에  
어머니 눈웃음 담은 돌각담길  
조붓조붓 나 있습니다.  
보리밭 실개천 지나  
앵두가지 나무마다 불밝힌  
오롯한 풍경을 보셨는지요  
돌각담 길에 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렇듯 애쁜 돌각담 길 내어주며  
끊어진 세상의 길을 잇는 듯 싶습니다.  
슬픔과 절망도 약으로 달여 쓸 것 같은  
봄바람 한 줄기  
앵두꽃 등 켜진 돌각담 들어섭니다.



### 곰 복원, 반달가슴곰은 안전한가?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반달가슴곰(아래 반달곰) 복원 사업이 한창이다. 2001년 새끼 반달곰 방사를 시작으로 곰 복원사업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곰 복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지리산에 방사한 곰만 20마리다. 그 가운데 2마리는 울무에 걸려 죽고, 1 마리는 실종, 3 마리는 회수되었으며, 4 마리는 배터리가 소진 되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여서, 10 마리만이 추적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부실한 준비와 부족한 전문성, 예산 등의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출발한데 있었다. 또 복원보다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마찰, 불법 울무에 의한 곰들의 사망, 사람과의 만남으로 야생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곰 복원 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런 까닭에 많은 곳에서 반달곰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사곰과 야생곰의 생태특성, 관련연구 조사, 복원사업 지역주민 홍보,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달가슴곰복원센터를 세울 것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11월 곰 복원 사업 주무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에서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종복원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곰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아 가고 있는 것이다. 종복원센터는 방사곰에 대한 위치추적을 통하여 먹이, 행동, 서식지 등 전반적인 생태특성을 파악하고,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방사곰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에게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지역주민 간담회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해가고 있다.

이렇게 복원과 관련된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과연, 지리산 반달곰은 안전할까?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곰의 개체군은 크기가 작고 고립되어 있어 자연적인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달곰의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도의 곰 복원 사업으로 이어졌다. 곰복원 사업으로 서식처를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반달곰이 자유롭게 살아갈 날은 아직 멀기 만하다. 반달곰 복원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지리산의 생태환경현안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도로이다. 남원-구례간에 4차선 19번 산업국도, 건설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함양간 88고속도로 2차선 도로를 4차선 노폭확장 공사, 구례-하동간의 19번 국도는, 하동 화개까지는 계획이 완료 되어서 2차선을 4차선 확포장 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작년 11월 뚫렸다. 백두대간의 생태축으로 이어져야 할 지리산이 도로로 인해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리산 북쪽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고리봉 바로 아래는 고기리담이, 낙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삼신봉 자락에는 산청양수발전담이, 바래봉 자락 아래 운봉은 허브단지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계곡 곳곳은 마구잡이 팬션 건설로 멍들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관광객 숫자 또한 반달곰 생활영역과 겹쳐 있다.

수많은 개발 사업으로 훼손되어 가는 서식지에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지역주민 임산물 채취가 허용, 멧돼지 피해 비롯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까지, 반달곰의

영역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일일이 열거가 불가능 할 정도로 많다. 반달곰 복원 사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이유다.

● 하루일정

순례 구간	면곡분교 출발
	→ 농평 → 당재 → 신흥마을 → 쌍계초등학교 → 중촌 → 상훈사(20km)
프로그램	산사체험
숙소	하동군 화개면 상훈사



▲ 생태학습장에 계류되어 있는 덕성 16호

## 화개장터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다.

(중략)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 고사리들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화물 장수들의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 분들이 또한 구렛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의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 자반고등어 등이 들어오곤 하여 산협(山峽)치고는 꽤 은성한 장이 서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화개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갯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 맑고 멋들어진 진양조 단가,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 김동리의 역마(驛馬) 가운데

지금의 화개장터는 옛날 그 왁자지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장터 앞 벚꽃길은 섬진강에서 잡은 은어와 참게를 파는 음식점들만이 즐비하다. 요즘에는 화개장터를 옛정취가 나도록 짚으로 만든 지붕을 얹어 시장을 다시 만들었으나 사람 냄새나던 옛날의 장터라기보다는 다듬어 놓은 관광지가 되어 버렸다.

## 보부상? 부보상!

이 화개장터를 비롯해 전국 팔도를 누비었던 부보상, 흔히들 보부상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일제강점기 때 바뀐 말이라고 한다. 보부상은 원래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이다. 보부상은 일종의 행상조합으로, 부상(負商)과 보상(褸商)의 두 개의 상단(商團)으로 구분되었고, 취급하는 물품도 달랐다. 부상은 나무그릇·토기 등과 같은 일용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해서 ‘등짐장수’라고도 했다. 보상은 비교적 값비싼 필묵, 금·은·동 제품 등과 같은 정밀한 세공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머리에 이거나, 걸머지고 다니며 판매해서 ‘뚫짐장수’라고도 했다. 주로 등짐은 남자가, 뚫짐은 여자가 담당했다.

하지만 보부상들은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를 물리력으로 해산시킨 황국협회로 언뜻 연상된다. 조선왕조 몰락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돈에 동원된 사람들로 이미지가 고정되어 버렸다. 보부상은 고대의 상업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업이라는 것은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보부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태조 이성계 부터이다. 조선건국에 큰 역할을 한 부상들을 위해 사실상의 공조적인 부상청(負商廳)이 창설되었고 국가의 보호 아래 육성되었다. 이렇다 1883년에 이르러 정부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져서 혜상공국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두기 시작한다. 갑자기 관심이 증대된 이유는 이들이 개항 후 청국과 일본 등 외국상인의 침투로 극심한 난국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필요했고 다른 하나는 보부상은 개항 당시 상인단체 가운데서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단체이므로, 정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종은 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동원했고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거나 독립협회를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이 결과 이들은 각종 특권을 받았고 이익집

단화 되면서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상실했다. 상업 자본의 축적은커녕 보수상인단체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제시대 점차 소멸되고 지금은 충남 일부에만 그 존재가 남아있을 뿐이다.

원래의 이름은 '부보상'이다. 1925년에 가서야 보부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말이 바뀐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왕조의 중상정책을 폄하하고 역사왜곡을 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일본 상인들과 대결하는 위험한 세력이었으니 단순한 보따리장수라고 이들을 폄하할 필요도 있었다. 아무튼 별 뜻 없이 쓰는 이 말속에서까지도 고도의 식민지배이데올로기와 자학사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라도 원래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출처 : 시민의 신문)



▲ 화개장터 벚꽃 아래 걸려 있는 보부상

## 환거리산 생태문화역사 관찰로

1980년대 이후 백두대간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산악인이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 등 여러 형태로 백두대간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백두대간을 종주능선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알고 있어, 짧은 시간동안 능선길만 빠르게 걷고 돌아오는 종주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순례단이 찾아가는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시점이자 종점이며 국립공원 1호로 풍부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산 또한 주능선 중심의 탐방문화와 종주로 인해 연간 탐방객 수가 300만 명이 넘고, 등산로와 식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산을 찾는 탐방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리산 권에 자리잡은 산촌마을은 대부분 관광활성화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환경친화의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은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전국 400여개 마을에서 농촌관광 시행하고 있고, 농촌관광은 국내 관광시장의 8~10% 차지한다. 주5일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2011년에는 국내관광의 2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능선 중심 탐방문화의 대안을 마련하고 산촌마을이 지속가능한 탐방 거점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녹색사회연구소에서 「환지리산 생태문화역사관찰로」 조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접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생태문화역사자원과 길을 조사하여 국립공원 바깥으로 탐방객들이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관찰로를 만들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장거리 자연보도'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역을 종단, 횡단하면서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자원 등

을 연결한 보행자 중심의 길을 만들었다. 이 길은 총 연장 21,000km로 연간 약 4,000만 명이 이용한다. 길이 자연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체험케 하는 이 길은 이용이 가능한 지역의 적극 이용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확실한 보호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이러한 길은 영국의 foot path, 미국의 national trail system, 뉴질랜드의 walkway, 호주의 walking track 등을 들 수 있다.

한지리산 생태문화역사관찰로는 길을 걸으면서 국토를 향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거점을 연계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만나는 길이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에는 많은 문화역사자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환경친화적인 순례길, 관찰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환경파괴를 바탕으로 한 여가산업과 관광산업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미 나 있을 길을 활용하여 풍부한 내용으로 순례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대안의 길이 될 것이다.



### 마구잡이식 공사 회남계 포장도로

회남재는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면 묵계리를 연결하는 임도를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한 곳이다. 이 길은 경상남도에서 지리산 남부생태권을 단절시키며 관광도로를 만드는 계획으로 포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1km 구간이 완공된 이곳은 준공된 지 4달도 되지 않아 도로가 붕괴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 도로가 붕괴되어 길은 통행이 금지된 상태이다.

이 곳은 섬진강과 19번 국도로 이어지는 악양천 초입부터 5km 구간은 일찌감치 포장됐고, 등촌리~묵계리간 도로는 4km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 구간을 나누어 진행했지만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돈이 없어 확보되는 대로 나누어 공사했다”고 말했다. 순례단이 지나게 될 등촌리 일대 2.1km 구간은 가파른 곳이어서 절개면이 넓고,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하동군은 2003년 9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지역환경단체들의 지속적 문제 제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04년 5월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청은 그 후 두 달 만에 “생태자연도 1,2등급 해당 지역으로서 도로 개설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이미 벌목과 절개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협의해줌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나 공사는 2004년 회남재 정상 700m를 앞두고 중단됐고, 12월에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하동군과 경상남도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감사 의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 3월에는 해빙기와 지난 며칠간 내린 소량의 봄비 때문에 절토면이 무너지고, 2005년 7월 장맛비에 마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듯 아스팔트 포장에 썩 벌어지는 등 두 차례 붕괴가 일어났다.

하동군 관계자는 회남재~청암면 목계리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2007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한 하동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하루일정

순례 구간	상훈사 출발 → 임도 → 형제봉 옆 활공장 → 청학이골 등산로 → 회남재 → 회남마을 → 목계초등학교(15km)
프로그램	작은 체육대회 빨치산 이야기(서재철)
숙소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목계초등학교



| 오윤 / 형님 |

## 이상향 청학동

청학(靑鶴)은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태평시절과 태평한 땅'에서만 나타나고 또 '운다'는 전설의 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태평성대의 이상향을 청학동이라 불렀다. 「정감록」에서는 '진주 서쪽 100리, ~석문을 거쳐 물 속 동굴을 십리쯤 들어가면 그 안에 신선들이 농사를 짓고 산다'고 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청학동을 찾아 나선 바 있는데 누구는 피아골을, 누구는 불일폭포를, 누구는 세석평전을 청학동이라고 짚어보긴 했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 현재 지리산에 청학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현재의 청학동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다. 불일폭포 부근, 세석평전, 청학이골(약양면 등촌리 위쪽), 상덕평마을(선비샘 아래) 등이다. 말하자면 지리산 곳곳이 청학동인 셈이다. 그만큼 지리산에는 태평성대한 땅이 많다는 말도 된다. 그 중 알려진 청암면 묵계리 학동마을이 청학동으로 유명해진 것인 그 입지가 전설상 깊은 골짜기와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이후 외부와 담을 쌓고 독특한 생활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마스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위道人촌(道人村)으로 불리



는 이곳은 80년대 이후 청학동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외부인들의 드나들이 잦아졌고 어쩔 수 없이 이곳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도인촌이라기 보다는 관광촌이 되어 은둔지로서의 청학동 성격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얕은 호기심과 눈요기를 위한 관광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근대화와 서구화로 치달는 현실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예스러움과 의식, 오래된 미래의 생활양식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 묵계리는 지금

순례단이 다섯 째 밤을 묵어가는 묵계리. 묵계 초등학교는 여느 시골학교와 달리 현재 10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원래 묵계리에 살았던 아이들은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 곳 청학동이 옛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유명해지면서, 그들의 서당과 예절학교가 유명해지면서 현재는 제도권 교육의 학교는 묵계초등학교를 보내고 학교가 파하면 기업형의 서당에 들어가 기숙생활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묵계리에는 또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 저수지는 묵계저수지는 20여 년 전 즈음 만들어졌는데 순례단이 걸어온 화님재 밑으로 터널을 뚫어 묵계저수지의 물을 아래 악양과 구만들로 보내고 산과 고개를 뚫어 보낸 물로 악양의 그 넓은 들은 채워진다.

##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 지리산 빨치산의 역사와 투쟁

지리산이 여느 산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지리산의 그 진했던 피의 역사 때문이다. 현대사의 분수령 한국전쟁에서도 가장 비주류적 아픔의 현장이 바로 지리산이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민중들에게 어떻게 아로새겨졌던가를 가장 처절하게 말해주는 곳이 지리산이다. 녹색순례를 맞이하여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었던 빨치산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빨치산은 빨갱이 혹은 공비로 알려지기도 했고 공화국의 영웅이나 인민의 전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극과 극으로 이해되고 표현되었다. 빨치산의 어원은 '파르티잔'이라는 러시아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표현이 한반도로 유입된 것은 일제를 거치면서 러시아를 타고 넘어왔다. 실제 스탈린그라드로 표현되는 2차대전 때 독일에 맞서 싸우던 소비에트의 노동자와 농민 등이 소비에트정규군과는 또 다른 세를 형성하면서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에서는 이들을 항독빨치산으로 불렀다. 이것이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등의 항일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해방전후 한반도로 넘어왔다. 빨치산이라는 표현은 어원이나 정서에서 계급투쟁이나 민중투쟁 진영의 관점에서 사용되었다. 실제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서는 빨치산을 공비 혹은 야산대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최초의 빨치산 투쟁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자. 일제의 식민지가 광폭한 탄압과 수탈로 점철되며 극으로 향하던 1930년대부터 국내의 독립투사들은 계몽이나 실력증진이라는 개량적 형태의 운동을 접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로 진출했다. 특히 일제의 극심한 착취에 도저히 살기 어려웠던 많은 민중들이 국내를 등지고

만주와 연해주로 진출했다. 이런 토대를 발판으로 독립운동은 본격적인 무장운동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쪽과 연계되면서 운동의 방식은 무장투쟁이고 이념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그 중심의 활동가들이 빨치산으로 불려졌다. 북은 내외 다 인정하는 것처럼 30년대 중후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전개했다. 보천보 전투로 상징되는 김일성주석을 중심으로 한 그룹을 비롯하여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을 비롯하여 중국 쪽에서 투쟁했던 그룹 등이 만주부터 연해주까지 광범위하게 다양한 규모를 유지하며 10여년 이상 해방까지 투쟁했다. 특히 이들 중 팔로군이나 조선의용군에서 항일투쟁으로 생사를 수없이 겪으며 노련해진 투사들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여 최후에는 지리산의 빨치산으로 눈발에 혹은 조릿대 군락 속에 이름없이 거름이 되어갔다.

남한에서 최초의 자생적 빨치산 투쟁은 일제 말기에 시작되었다. 1943년에서 44년 사이 경남 함양군 백전면 일대의 괘관산이 효시다. 함양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일대에서 징용과 징병을 피하려던 장정들 10여명이 주재소를 습격하여 소총 등의 무기를 탈취하여 괘관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해방까지 저항했다. 괘관산은 백두대간 백운산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지리산 주능선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반야봉-세석-천왕봉 등의 주요 봉우리에서 보면 덕유산 줄기 전에 뚜렷하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세 개의 산 덩어리가 보인다. 가운데가 백두대간의 마루금이 지나가는 백운산이고 왼쪽인 서쪽이 호남정맥의 장안산이며, 오른쪽인 동쪽이 괘관산이다. 남한 최초의 빨치산투쟁과 그 현장인 괘관산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투쟁을 이끌었던 장본인이 남한 빨치산의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남도부(본명:하준수)였다. 하준수는 1980년 최초의 지리산빨치산을 다룬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에도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1953년 대구의 팔공

산에서 체포되어 방첩대(현 기무사)에 6개월 이상 조사받고 끝내는 사형 되었다.

남한 빨치산은 크게 세 곳에서 전개되었다.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등으로 이곳은 모두 백두대간이다. 태백산은 46년 대구 10월 항쟁 이후 수배당했던 학생과 노동자 등이 경북 청송, 영양, 봉화 등으로 산지로 숨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야산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빨치산 부대로 발전했다. 지금의 태백산을 중심으로 태백, 봉화, 정선, 영월, 울진 등을 무대로 한국전쟁 때까지 활동을 전개했다. 태백산빨치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알려진 사실보다 역사적 기록은 풍부하다. 당시 미군사고문단의 미국 쪽 정보 보고서나 경찰정보 보고 등을 찾아보면 광범위한 기록이 나온다. 남한 빨치산 내에서도 태백산전구는 광범위하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물어갔던 기록으로 되었다. 오대산은 빨치산부대 중 정예들이 남파되어 활동한 공간이었다. 46년부터 50년 초반까지 남로당이 불법화되면서 월북했던 남로당 출신들이 강동정치학원과 금강정치학원 등에서 중단기 코스의 집중적인 유격전과 정치 학습을 받고 50-100, 100-200명 단위로 남파되어 오대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당시의 남과 북이 대치하던 삼팔선은 지금의 오대산 북쪽 지역인 홍천군 내면 일대였다. 그래서 오대산은 삼팔선과 바로 연결된 곳이었다. 이런 이유로 오대산에 집중적으로 남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대산으로 파견된 부대는 대부분 괴멸했다. 침투초기에 부대의 주력이 토벌군의 매복 걸려서 제대로 된 활동도 전개하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런 사실 들이 전쟁 후에 북에서는 박헌영의 미제스파이 사건 때 주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빨치산의 대명사인 지리산 빨치산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번의 분기점이 있다. 첫 번째 여순인민항쟁, 혹은 여순병란이

다. 1948년 10월 제주도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항에서 출동을 대기 중이던 국군 14연대의 하급장교들과 사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 순천, 구례, 곡성 등을 휘저으며 지리산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이 것이 본격적인 지리산 빨치산활동의 출발이다. 이때 산으로 들어온 빨치산들 사이에서는 구빨치라 불렀다. 빨치산 중의 빨치산, 전설의 빨치산들이 바로 구빨치들이었다. 실제 한국전쟁이 발발한 50년 6월까지 살아남았던 빨치산은 200-300명이 안된다고 대부분의 활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명 내외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두 번째의 분수령은 한국전쟁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라도와 경상도의 인민위원회의 지지자들과 인민군들이 퇴로가 막혀 지리산의 모여들어 대규모의 빨치산 부대가 형성되었다. 이때 입산한 사람들은 신빨치라 부른다.

세 번째는 지리산빨치산의 최대 분수령인 대성골전투다. 1952년 1월 17일 지리산 천왕봉, 촛대봉 일대로 몰려든 빨치산은 토벌군인 국군 기갑연대와 26연대의 포위에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죽음의 대성골 한가운데로 걸려든다. 막다른 골목길에 몰린 빨치산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필사적인 돌격을 감행한다.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는 야간 전투로까지 이어진다. 박격포와 대포가 비오듯 쏟아지고 미군기들이 드럼통과 네이팜탄을 수없이 퍼 부었다. 지리산에서 국군 토벌작전이 시작된 이래 최대규모의 전투가 대성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의 집계로 사상 3백명, 포로 2백 51명이나 되어 대성골에 몰려있던 적세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었다. 이로써 남부군 직속 81사단과 92사단, 그리고 경남도당 57사단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지리산빨치산의 주력인 경남도당이 거덜 난 것이다. 대성골 전투의 피해 숫자는 증언자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군의 집계와는 달리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대성골에서는 죽은 유골이 수십 구씩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리산빨치산에는 여러 걸출한 인물들이 있다. 보통 언론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현상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김지회, 박종하, 박영발, 방준표, 김선우, 김달삼, 남도부 등이 있다. 김지회에는 초기 빨치산의 대표적 인물로 50년 봄 지리산 달궁마을의 주막집에서 막걸리 서너 잔을 얻어 마시고 동료 10여명과 깊은 잠을 자던 중 주모의 밀고로 토벌대에게 포위되어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는 당시 살아남았던 동료 중에는 김지회의 애인이자 동료였던 조경순이 있다. 그는 전남도립 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김지회의 부대에 합류했다. 조경순은 광주 군사법정에서 전향하면 살려준다는 권유도 뿌리치고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김지회의 길을 따라서 조국해방을 외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리산 빨치산 사이에 가장 용맹한 투사라면 박종하가 으뜸이다. 전남 구례군당 소속의 전사로 시작된 박종하는 빨치산이 되기 전 구례 일대에서 주먹이 세고 남아답다 하여 동네 건달도 우러르던 인물이었다. 일제 때부터 그의 주먹 이력은 지리산 자락의 구례, 곡성에서 유명했다. 당시의 동료나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전투에서 박종하는 항상 총탄이 쏟아져도 제일 먼저 일어나 앞장서서 적을 제압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료들도 그와 함께 하면 겁없는 빨치산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50년 겨울 지리산에서 어이없는 총탄에 사라졌다.

지리산 빨치산에는 전설의 쌍두마차 박영발과 방준표가 있다. 박영발은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이현상 숙청에 앞장서기도 했다. 54년 1월 중순 뱀사골 비트에서 35연대 수색대에 포위돼 권총으로 자결했다. 경북 봉화의 빈농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토목 노동자로 해방 후 전평(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토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47년 월북해 모스크바 공산대학

6개월 특별 과정을 이수하고 전쟁이 나자 전남 도당 위원장으로 내려왔다. 도당 위원장 직책만 말고 유격 사령관 자리는 그대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선우에게 맡겨 두었다. 체력은 약했지만 정신력은 대단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방준표는 전북 도당 위원장으로 54년 1월 31일 남덕유산의 아지트에서 죽음을 맞았다. 경남 거제 태생인 그는 대구사범 학교를 나와 한때 교직에도 있었다. 46년 대구 철도 파업에 연류되어 수배를 받고 월북해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유학했다. 전쟁이 나자 전북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돼 내려왔고 전북 도당 유격사령관을 겸해 가장 세가 강했던 전북 유격대를 이끌었다. 53년 7월 북한 중앙당으로부터 파견된 연락원 5명을 장악하고 이현상 숙청(평당원 강등)에 앞장섰던 그는 토벌대에 포위되자 끝까지 저항하다 죽음을 맞았다.

김선우는 구빨치 출신으로 전남 도당 유격대를 지휘했다. 54년 2월 27일 광양 백운산 아지트를 습격받자 수류탄으로 자결했다. 일제 때부터 지하 운동을 했던 그는 전남도 유격사령관을 맡아 백아산과 백운산을 오가며 빨치산들을 지휘했는데 지식인이었던 그는 역사, 이론서를 늘 탐독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아지트에도 수북히 쌓인 책들이 발견됐다. 제주 4.3항쟁의 핵심인 김달삼은 48년 월북한 후 북한에서 유격전 교육을 받은 정예대원을 이끌고 남파한다. 백두대간 줄기를 타고 남하하여 태백산유격전구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들은 경북 영양군 일월산 일대에서 지역의 빨치산들을 규합하고 경주 북방 보현산을 기점으로 [동해여단]이라 불리며 활발한 유격전을 벌인다. 이들이 인민유격대 제3병단으로 이현상의 인민유격대 제2병단과 함께 끈질기게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김달삼은 50년 봄 태백산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리산 빨치산 투쟁은 53년 정전협정 전후에 이미 투쟁의 의미는 사라진 역사투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55년 4월1일

국군은 지리산의 입산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까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등을 떠돌며 산짐승 같은 생활을 하던 빨치산 들이 수십 명가량 존재했다. 56년 12월 31일에도 43명이 산간을 떠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전의를 상실한 그저 생존을 위해 산은 숨어 다닌 정도였다. 그러다가 63년 11월 12일, 지리산 기슭인 산청군 삼장면 상내원리에서 오랫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 온 지리산의 마지막 빨치산인 이홍이(李洪伊)이 사살되고 정순덕은 생포되었다. 그 이후 지리산의 빨치산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지리산은 빨치산은 우리 현대사가 낳은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에서 조차 잊어졌던 이들이다. 역사는 아직 이들이 왜 산으로 갔는지 아직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다. 기다림에 지쳐 산으로 갔던 이들의 아픔과 고난을 후세들은 화해와 공존의 역사에서 새로 써야 할 것이다.



김진하 / 가시밭

## 순례길에 시 두 편

### 진달래 산천

신동엽

진달래 산천  
길가엔 진달래 몇 부리  
꽃 꺾었고,  
바위 모서리에  
이름 모를 나비 하나  
머물고 있었어요  
잔디밭엔 장총(長銃)을 버려 던진 채  
당신은  
잠이 들었죠.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렷적 장수들의  
의형제를 문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백성은 썩어 꽃죽 날리도록.  
남했가,  
두고 온 마을에선  
언제인가, 눈먼 식구들이  
끓고 있다고 담배를 맡으며  
당신은 쓸쓸히 웃었지요.  
지까다비 속에 든 누군가의  
발목을  
과수원 모래밭에선 보고 왔어요.

꽃 살아 튀는 산 허리를 무너  
 온종일  
 탄환을 퍼부었지요.  
 길가엔 진달래 몇 부리  
 꽃 꺾 있고,  
 바위 그늘 밑엔  
 얼굴 고운 사람 하나  
 서늘히 잠들어 있었어요  
 꽃다운 산골 비행기가  
 지나다  
 기관포 쏟아 놓고 가 버리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그리움은 회올려  
 하늘에 불 붙도록.  
 뱀섬은 썩어  
 꽃죽 날리도록.  
 바람 따신 그 옛날  
 후고렷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문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잔디밭엔 담배갑 버려 던진 채  
 당신은 피  
 흘리고 있었어요.

## 순례길에 시 두 편

지리산

김지하

눈 쌓인 산을 보면 / 피가 끓는다  
푸른 저 대상을 보면 / 노여움이 불붙는다  
저 대 밑에 / 저 산 밑에  
지금도 흐를 붉은 피

지금도 저 별판 / 저 산맥 굽이굽이  
가득히 흘러 / 울부짖는 것이여  
깃발이여 / 타는 눈동자 떠나던 흰옷들의 그 눈부심

한 자루의 녹슨 낫과 울며 껴안던 그 오랜 가난과  
돌아오마던 덧없는 약속 남기고  
가버린 것들이여  
지금도 내 가슴에 울부짖는 것들이여

얼어붙은 겨울 밑 / 시냇물 흐름처럼 갔고  
시냇물 흐름처럼 지금도 살아 돌아와  
이렇게 나를 못살게 두드리는 소리여  
옛 노래여

눈 쌓인 산을 보면 피가 끓는다  
푸른 저 대상을 보면 노여움이 불붙는다  
아아 지금도 살아서 내 가슴에 굽이친다  
지리산이여  
지리산이여

### 고운동 달빛과 산청 양수발전소

지리산 양수발전소는 지리산 국립공원 바로 바깥에 들어섰다. 하부댐은 시천면 내대리에 들어섰고 상부댐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에 고운동계곡을 가로막으면서 들어섰다. 총 공사비 3,800억원을 들여 1994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02년 7월에 완공된 지리산 양수발전소는 건설 당시 지리산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여론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댐의 구조물은 국립공원을 벗어나 있으나 댐으로 조성된 호수는 공원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청양수발전소는 다른 양수발전소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성삼재 도로(서북부), 노고단 도로(서부), 그리고 양수 발전소 진입도로 등 댐 건설용 도로공사로 인해 지리산의 생태계가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지리산 양수 발전소 인근에 청암댐, 합천댐, 진양호가 생기면서 지리산은 물론 서부 경남 지역의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부댐 건설지의 대표 수종인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등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건조지역에 자라는 수종이나 댐으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나 냉해 등의 기후변화로 수종 또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양수댐이 건설되기 전에 환경부의 조사 결과 상부댐 예정지의 녹지자연도는 8~10등급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업을 계획하고 착공했던 한국전력공사(주)계열사인 한국동서발전(주)이 녹지자연도를 7등급으로 낮춰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상부댐이 들어서 있는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고운동 일대에 댐 구조물에 필요한 토석 조달을 위해 채석장을 조성한 후 제대로 된 복구, 복원을 하지 않아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또 개발 이후 지리산 식생과 맞지 않는 잣나무를 곳곳에 심는 등 형식적인 복구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일반조림의 원칙과 맞지 않은 어린 묘목을 심어 놓아 곳곳에 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하는 나무가 속출하여 태풍이나 장마 시 수해로 인한 붕괴와 산사태의 우려가 높다.

양수발전이란 내대리에 위치한 하부저수지의 물을 전력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고운동에 자리한 상부저수지로 퍼올렸다가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다시 하부댐으로 물을 흘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양수발전 방식은 원자력 발전과 한 궤를 그리며 진행되는 발전방식이다. 원자력발전은 발전 중지와 재시작에 드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발전을 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밤 시간대에 남는 전기를 이용하여 양수발전소의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 올려 전기가 부족한 낮에 발전하는 방식이다. 엄청난 자연훼손을 일으키며 들어선 양수발전소이지만 현재 가동률은 채 한달을 못 넘기고 있다. 양수 발전방식을 처음 구상했던 9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는 심야전기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양수발전 준비를 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달도 채 못 되는 가동률조차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순례길 가운데 점봉산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계속해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정책이 가져온 결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개발과 전력수요저감정책을 도외시한 채 에너지선진국들이 이미 폐기하고 있는 원자력 중심의 방식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고운동을 막아 건설된 지리산 양수발전소가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은 접어두고라도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양수발전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기업의 덩치불리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획되어 있는 양수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라도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하루일정

	북계초등학교 출발
순례 구간	→ 삼신봉터널 → 양수발전 상부댐 → 반천계곡(고운동계곡) → 반천리(10km)
프로그램	순례를 마무리하며(다함께)
숙소	산천군 시천면 반천리 서지농원

**낙남정맥**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큰 줄기와 1개의 정간, 그리고 13개의 정맥으로 이어져 있다. 정맥은 큰 대간 나무에서 뻗어 나온 줄기로 볼 수 있는데 남한에는 9개의 정맥이 있다.

그 중 낙남정맥은 지도상 거리가 약 228km로 지리산 영신봉(靈神峰:1,651m)에서 시작해 하동, 진주, 함안, 마산, 창원을 지나 마지막으로 김해의 낙동강 하류인 매리마을에서 그 맥이 다하는 한반도 최남단의 산줄기이다. 지리산군을 제외하고는 함안 여항산(770m)이 최고봉이 될 정도로 대부분 낮은 산으로 이어지는데 낙남정맥이 영신봉에서 뻗어 나오자마자 만나는 봉우리가 바로 삼신봉이다.

## 국립공원관통터널 삼신봉터널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와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를 잇는 삼신봉터널은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례다. 2004년 7월 완공된 2.1km 길이의 이 터널은 국립공원의 1.5km구간을 관통하지만 입구와 출구가 그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터널을 포함한 총길이 4.2km의 도로는 신설 구간이 3.1km여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소문도 거의 나지 않았지만, 도로의 국립공원 관통 사례는 사패산터널과 계룡산터널 외에 하나 더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법을 피해 건설한 삼신봉터널은 완성이 되고도 한동안 개통되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는 삼신봉 터널의 매연과 소음 때문이었다. 삼신봉 터널은 여느 터널과 다르게 터널 안의 천장이 아치형이 아니라 네모반듯하게 나있고 그 사이 사이에 환풍기 구멍이 뚫려 있다. 이 환풍기가 가동되면 소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매연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삼신봉터널 구간을 포함하여 하동군 청암면~산청군 시천면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우회도로를 통해 약 1시간30분 걸리던 지리산 청학동과 중산리간 통행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되긴 했단다. 그리고 하동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순례단이 전날 걸었던 회남재와 청암면을 잇는 도로의 포장도 끝나면 청학동 관광객을 악양면 평사리(소설 '토지'의 무대)와 섬진강변 19번 국도까지 하루에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단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바쁘게 이동하는 관광객이 하동군에 오래 머무르면서 경제적 이득을 줄지는 미지수다.

### 그 밖의 거역산의 개발현안들

산수유와 지리산 온천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동면 관산리 일대 임야에 지리산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업체 쪽은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한 듯 아름드리 나무를 수도 없이 불법으로 잘라내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사포마을 주민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면서 폭행하는 대담성을 보이기까지 했다. 골프장 예정 부지는 지리산 성삼재 자락으로 주민들의 상수원이 있는 곳이며, 또한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온천공을 뚫어 놓은 곳이다. 이렇게 골프장 부지로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인데도 구례군과 건설업자 쪽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 방해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 총 여섯 건의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다. 지난 12월 28일,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사포마을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구례장터에 모여,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 땅에서 지금처럼만 농사지으면서 살게 해 달라며 애원하듯 골프장 반대를 외쳤다.

지금 지리산권에는 구례군뿐만 아니라, 남원시, 함양군, 하동군 등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유 임도(임업을 위해 쓰는 길) 뿐만 아니라, 군유 임도, 사유 임도 등 지리산권에는 수없이 많은 임도들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을 이용해서 활공장으로 활공 장비를 나르기 위해 개설한 형제봉과 구제봉에 위치한 임도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형제봉은 반달곰의 매우 좋은 서식지로 알려진 곳인데, 실제로 산림청에서 임도를 개설한 뒤 요즘에는 단 한 번도 그 근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제봉은 아예 봉우리 전체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보조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임도 개설은 그 자체의 물리적 자연 훼손뿐만 아니라, 차량을 타고 들어가기 좋아져서 야생동물의 밀렵이나 희귀 식물의 채취 같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따위 2차 피해가 더 크다.

이 밖에도 경관과 수생동물의 습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제방공사, 양수발전소, 농업용수용댐 등으로 인한 자연 계곡 수몰, 구례군과 산청군의 케이블카 계획, 산청군의 밤머리재 터널 계획, 함양군의 마천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리산 훼손 계획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지금 계획 중인 또 하나의 개발프로젝트인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위에서 열거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자체장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까지 염두에 두면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문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실속이 있든 말든 겉이 화려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세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이 편의대로 그어 놓은 국립공원 녹색 경계선 속에만 지리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은 인간이 패턴화시켜서 금을 그어 놓은 그 지점에서 보전이나 개발이냐로 갈리지 않는다. 국립공원을 살짝 벗어난 지역의 막개발 때문에 지리산 속에 사는 무수한 생명들과 산자락에 기대어 사는 지역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해 보시길 바란다.

(2005.04\_작은책)

### 산청 외공리 양민학살, 어떤 사건인가?

좌우의 이념 대결이라는 극한 양상 속에서 비무장 하의 지리산 인근 양민들의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었다. 특히 1951년경에는 대량 양민 학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 중 '산청, 함양 양민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은 1951년 2월 7일 공비 토벌을 명목으로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9연대(연대장 오익경) 3대대(대대장 한동석)가 지리산 아래 산청의 가현마을(123명), 방곡마을(212명)과 함양의 점촌(60명), 서주마을(310명)에서 주민 705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위 사건들 외에 자세한 정황이 조사되지는 못했지만 중군리 구진벌, 군자리 앞산, 시천면 신천국민학교, 산청읍 내외 경호강변 중거리 앞 섬진강변 모래밭 등에서 양민들이 집단총살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외공리 사례는 1951년 3월 12일 시천면 외공리 점동마을 뒷산 소정골짜기에는 피난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양민 500여 명이 11대의 버스에 실려와 김종원 인솔 하의 11사단 9연대 화랑부대에 의해 총살당한 사건이다.

1951년 3월 중순경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 군용트럭을 앞세운 11-14대의 버스가 피난민 행색의 민간인을 가득 태워 들어왔다. 버스 번호판은 '신흥', '경북', '서울시영버스'였고, 군인들은 이들 민간인을 소정골 앞 골짜기로 끌고 가 학살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주민은 구덩이를 파고 한 사람씩 세워놓고 총을 쏘았다고 증언했다. 골짜기에는 이불, 옷

가지, 솔단지, 갓난아기, 베개 등의 가재도구들이 널려 있었으며 일부는 당시 현지 주민들이 가져갔다고 한다. 이상은 사건에 대해 현지 주민들이 증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또 1960년 5월 19일, 21일자 「부산일보」는 1949년 9월-12월 사이에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서 7백여 명의 사람들이 좌익단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덕산 농업 창고 안에 수용되어 온갖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차례로 총살당했다는 끔찍한 사건을 기사화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금서면 방곡리 가현부락 청년 40여 명이 국군의 탄약 운반 일에 징용되어 노역 임무를 마친 후 사천군 새동 공동묘지에 끌려가 3연대 박모 대위로부터 총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빨치산과 토벌대 사이에서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으로 수시로 지배자가 바뀌는 시기를 살았던 당시 양민들의 고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된 조사나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다.

## 덕천서원

조선시대부터는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양반층 중에서도 도를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했던 선비들이 지리산을 유람했던 기록 등을 남겼다. 특히 남명 조식은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지리산 자락에서 후학을 기르고, 자신의 학문을 닦았다.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던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인 남명 조식의 유적인 산천재, 덕천서원 등은 산청군 시천면에 자리잡고 있다.

덕천서원은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첫 정일(丁日)에 제사를 지내고 매년 양력 8월 18일에는 남명선생의 탄생을 기념하는 남명제가 열린다. 덕천서원은 큰길가에

바로 접해 있으며 홍살문과 남명이 심었다는 400년이 넘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마음 좋은 수문장처럼 객을 반겨 맞는다. 남명이 타계하고 5년 뒤인 선조 9년(1576)에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을 세웠으며, 광해군 1년(1609년)에 사액을 받았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없어져 1920년대에 다시 중건되었다고 한다. 당시 규모로서는 삼산(덕산, 도산, 옥산) 가운데 제일 컸다고 하지만 현재는 다른 서원들에 견주어 보았을 때 그리 크지는 않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아도 건물 배치에 엄격한 대칭성을 보이고 있어 정연한 기품이 느껴진다. 바로 앞 강가에 남명 선생 생전부터 있었다는 세심정이 있다. 혼탁한 마음을 이곳에서 씻고, 남명의 고고한 인품을 호흡해 본다.



비어있는 공간

나뭇가지에서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데도  
온 우주가 용을 쓴다



● 함께 풀어보아요~~~

얼레지도, 반달곰도, 자벌레도, 사람도, 강물도... 더불어 살기 위하여 흙먼지 마시며 걷는 순례 기간 동안 문제를 풀어 보세요. 퍼즐의 씨줄과 날줄을 잘 엮은 님께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씨줄역기

1. 사티쉬 쿠마르의 평화를 위한 00, 그리고 녹색00
2. 섬진강 뚝방길 따라 걸을 때 만나게 될 '운조루'는 박경리의 유명한 소설 00의 배경이 되었던 00면에 있다.
3. 물이 지나가는 통로
4. 프랑스어로 '동지' 또는 '당파'라는 뜻의 'parti'에서 유래된 말로 일정한 조직체계에 의하지

	1		2	2		3			4
1								5	
					4		5		
5		6							
								6	9
7			7		8				
		10							
	8						11		
13									
			9	12					
		14							
		10							17
				15			18	16	
11				12					

않는 비정규군의 별칭. 한국의 000은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전후에 지리산 부근을 근거지로 활동함. 역사의 아픔이며 왜곡되어 배우기도 함.

5.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00터널. 청학동으로 가기 위해 내대마을에서 왼쪽의 낙남정맥 능선에 있는 목계치 아래로 뚫린 2.2km의 터널.

6. 동쪽으로 청암면, 북쪽으로 산청군·화개면, 남쪽으로 하동읍에 접하고, 서쪽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에 접함. 매년 토지문화제가 개최되는 곳.

7. 첫날 목계 되는 마을로 해발 900m 에 자리한 하늘아래 첫 동네, 00마을

8. 지도상에 그려진 평면의 그림으로 이것을 잘 보면 산이 벌떡벌

떡 일어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지도에 000이 없다면 붕어 없는 붕어빵, 칼 없는 칼국수.

9.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함.

10. 200여 년 전 삼한의 하나인 마한의 효왕이 진안의 침략을 받고 피난하여 살던 곳으로 궁의 이름을 달에 있는 궁이라 불리던 곳. 첫날 00삼거리를 지남.

11. 장터목과 천왕봉 중간에 있는 000은 고사목으로 유명

12. 도로에서 죽어가는 많은 동물을 000이라고 부름

13. 하동군 악양면과 청암면을 연결하는 고개인 000. 현재 지리산 남부생태권을 단절시키며 관광도로로 만들려는 계획임.

#### ▣ 날출역기

1. 국립공원 제 1호인 '지리산' 과 청정유수 '섬진강'이 있는 00군. 지리산남부사무소와 종복원센터가 있음.

2. 4월 22일은 00의 날이었죠. 하나뿐인 00

3. 첫날 아스팔트를 따라 걸어 도착하는 고갯마루. 이곳에 서면 지리산의 장대한 산줄기가 펼쳐짐.

5. 드라마 허준에서 산음으로 나온 이곳 00. 마지막 날 가는 곳은 00군 시천면 반천리.

6. 통신 수단이 없었던 옛날, 전쟁이나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올려 위급함을 알렸음.

7. 복구와는 구별해서 써야하는 의미로, 훼손된 자연은 00해야 함.

9. 발전소의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펌프를 가동하여 아래의 저수지물을 위에 있는 저수지에 퍼올려 두었다가 방수(放水)하여 발전하는 구조로 계속수 수량의 급격한 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큰 댐 방식입니다.

10. 오랜 기간 휴식년제로 인해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지리산의 신성한 제단.

11. 지리산 높은곳에 위치한 평야로 지리산의 10경 하나로 0000의 불타는 듯한 철쭉이라고 함.

12. 개구리가 기지개를 켜다는 00

14. 섬진강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 00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15. 중복00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하며, 필요없이 버려진 00도 정말 많음.

16. 훈향이와 이도령의 본고장 00

17. 중재 다음에 00, 코가 재에 닿을 것처럼 경사가 높다하여 붙여진 이름.

달는 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걸...

반병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 ● 2006 녹색순례에 도움 주신 분들

일주일 간의 녹색순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례단을 도와주신 많은 님들의 힘으로 녹색순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순례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 사람과 산에서 티셔츠를 지원해주셨습니다.
- 권용호 회원님이 자료집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 홍성 문당리에서 쌀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 신시에서 유기농 물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 풀무원에서 김치를 지원해주셨습니다.
- 정명희 활동가 부모님께서 트럭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 최병수 작가님께서 녹색순례 로고 디자인을 후원해주셨습니다.(2004년에 이어 2006년 백두대간, 지리산 녹색순례 로고의 원안은 최병수 작가님의 '장산꽃매'를 사용하였습니다.)
- 상훈사, 목계초등학교, 연곡분교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에서 지리산 가이드 도움을 주셨습니다.
- 종복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 지리산생명연대와 이윤수 회원님께서 순례 내용과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 참고자료

- 국제신문 | 지리산 생태복원 현장 |
- 국민일보 | 신음하는 지리산 |
- 환지리산 생태문화역사관찰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05.12/산림청
- 백두대간환경대탐사보고서/1998.03/녹색연합
- 지리산, 어머니같이 높고 넓은 명산/1992.06/이종길/수문출판사
- 지리산청년생태학교 자료집/2005.08/녹색연합
- 백두대간훼손실태조사연구2/2004.09/환경부
- 작은책/2005.04 | 피멍드는지리산-윤정준 |
- 답사여행의 길잡이, 지리산자락/2005.05.06/한국문화유산답사회/돌베개
- 한국의 발견(경상남도, 전라남도)/1987.07.01/뿌리깊은나무

이 시는 2011년 11월 11일

꿈없는 잠처럼  
잡념없는 노동  
그 안에서  
언제나  
좋은 날

이우환 '행운의날'

꿈없는 잠처럼 잡념없는 노동  
그 안에서 언제나 좋은 날

---

발간번호 | 006-04-003

퍼낸 곳 | 녹색연합

퍼낸 이 | 박영신

퍼낸 날짜 | 2006\_04\_25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13-34

홈페이지 | [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

전 화 | 02-747-8500

전 송 | 02-766-4180

---

